사전에 오늘의 불교 충실히 담기길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⑭ 국어사전은 불교를 어떻게 말하나(3)
스님·승려·중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에서 '스님', '승려', '중'을 찾으면 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에서 나온다. 그러나 '중' 항목 기본 화면엔 욕망과 조롱이 담긴 관련 속담 27개가 이어져, 자세한 설명을 찾으러 온 독자가 옛 조롱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한 종교를 이해할 때 공간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좋은 출발점이 된다. 절과 교회가 수행과 신앙의 공간을 알려 준다면, 스님과 목사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는 사람을 알려 준다. 이런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종교의 첫인상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은 불교의 종교인을 어떻게 설명할까. 온라인 국어사전 〈우리말샘〉에서 '스님', '승려', '중'을 차례로 검색해 본다.

'스님'을 입력하면 "승려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높임의 뜻을 알려 주는 풀이이므로, 그 대상을 알려면 '승려'를 다시 검색해야 한다. "불교의 출가 수행자"라는 설명이 나온다. 집을 떠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무슨 수행을 하고, 어떤 일을 할까. 혹시 예문에서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읽어 본다. 예문은 단 하나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승려가 되었다."

승려는 뜻풀이에서도 떠나고, 예문에서도 또 떠난다. 물론 출가는 승려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집을 떠난 뒤에는 수행하고 배우며 가르침을 전하는 삶이 이어진다. '승려' 항목은 그 삶의 시작을 거듭 짚으면서도 다음 장면은 보여 주지 않는다. 어디를 떠나왔는지는 알겠지만, 그 뒤 어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는 사실상 알기 어렵다.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전의 설명은 그 출발점에서 멈춰 버린 느낌이다.

이번에는 '중'을 찾아본다. "절에서 살면서 불도를 닦고 실천하며 포교하는 사람." 이제야 어디에서 살며 무엇을 하는지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다. 비하적 쓰임을 알리는 설명도 있다. 말의 역사 정보에 관련 속담까지, 스크롤을 내려야 할 만큼 정보가 많다. 앞선 두 항목에서는 짧았던 설명이 이곳에서는 화면을 가득 채운다.

'스님'을 알려면 '중'으로

'스님'에서 출발해 '승려'를 거쳐, 정작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중'에서 만나게 된다. 같은 사람을 가리켜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존중이 되기도 하고 모욕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조심해서 써야 할 이름이라고 알리면서 그 말에 더 구체적인 설명과 풍부한 정보를 모아 두었다면, 사전의 안내는 어딘가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이 어긋남은 다른 종교인의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더 뚜렷해진다. 〈우리말샘〉의 '승려'와 '목사'가 그렇다. 각각의 종교인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표현이다. '승려'는 앞서 본 "불교의 출가 수행자"가 뜻풀이의 전부다. 반면 '목사'에는 "개신교 성직자"라는 설명에 더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나 교구를 관리하며,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한다"는 직무가 자세히 담겨 있다. 단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알 수 있다.

이를 대조한 이유는 글자 수를 똑같이 맞추자는 데 있지 않다. 승려에게도 목사처럼 '성직자'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종교마다 수행과 성직, 공동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니 설명도 달라야 한다. 다만 한쪽은 어떤 사람인지 짧게 밝히고 끝내면서, 다른 쪽은 핵심 역할과 공동체 안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알려 준다. 그 차이를 묻는 것이다.

'수행자'라는 말속에 많은 것이 들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를 잘 모르는 독자에게 수행은 어떤 모습으로 떠오를까.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는 모습일까. 그 말만으로 예불과 법회, 가르침을 전하고 신도들과 함께하는 활동까지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사전은 이미 아는 사람보다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목사' 뜻풀이엔 자세한 직무, 승려는 부족
예문도 배움·공동체 의미 없이 단절만 보여
'중' 속담선 조롱·비하·혐오 마주하게 돼
사전에 상세한 설명 담고 실제 용례 보태야
불교 어휘 관심, 구체적 수정으로 이어지길

고립만을 보여주는 예문

뜻풀이 아래 예문으로 내려가면 두 종교인은 더욱 대조적인 장면에 서 있다. '승려'에는 "속세와 인연을 끊고 승려가 되었다"가, '목사'에는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제시된다. 한쪽은 승려가 되는 순간에 있고, 다른 쪽은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순간에 있다. 한쪽에서는 떠나는 모습이, 다른 쪽에서는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문장이 유일한 예문이라는 점은 아쉽다. 마치 한 사람의 생애를 소개하는 사진첩에서 집을 떠나는 날의 사진만 한 장 꺼내 놓은 것과 같다. 그 사진이 거짓은 아니지만, 정작 그 사람의 중요한 일상은 보여 주지 못한다.

출가 뒤에는 새로운 배움과 정진, 수행 공동체, 가르침을 나누는 관계가 있다. 그런데 '속세'와 '인연을 끊다'가 만나는 문장에서는 오직 이전 관계의 단절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예문 하나를 읽었다고 곧바로 승려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떠나온 곳을 보여 주는 만큼 새롭게 몸담은 공동체와 그 안의 일상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조롱과 모욕 가득한 속담

'중' 항목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린다. '중' 항목 아래에는 관련 속담 27개와 그 풀이가 별도로 '펼치기'를 누르지 않아도 기본 화면에 제시돼 있었다. 그곳에는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법당에 파리가 안 남는다", "중도 개[소]도 아니다", "중을 보고 칼을 뽑는다", "중 쳐 죽이고 살인한다" 등 욕망과 조롱, 비하와 폭력을 담은 속담이 계속 이어진다. 앞에서는 불도를 닦고 실천하며 포교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그 사람을 소재로 삼은 거친 말들이 줄을 잇는다. 자세한 설명을 찾으러 온 독자가 옛 조롱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되는 구조다.

역사 속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없앨 수는 없다. 사전에는 불편한 언어도 기록할 책임이 있다. 다만 옛말을 보존하는 일과 오늘의 검색 화면에 그 말을 어떻게 펼쳐 놓을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박물관이 과거의 유물을 보관한다고 해서 시대적 배경 설명도 없이 모두 현재의 생활용품처럼 진열하지는 않는다. 사전도 그 말이 놓였던 시대와 맥락, 오늘날 사용했을 때의 문제를 함께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유사한 표현은 묶고, 시대와 사용 맥락을 함께 설명하며, 각 표현의 현재 쓰임을 살펴 필요한 사용상의 주의를 표시하면 된다. 원하는 이용자만 펼쳐 읽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늘의 종교인을 이해하려는 검색과 옛 언어 문화를 알아보려는 검색은 목적이 다를 수 있다. 특히 그 옛말들이 조롱과 혐오로 가득하다면 사전의 화면은 그 차이 정도는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평범한 종교인의 현재를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상세한 설명을 '중'에만 두지 않고 중립어인 '승려'에도 담는 것이다. '승려'에 출가와 수행뿐 아니라 교법을 실천하고 전하는 역할을 함께 담으면 된다. 예문에도 출가 다음 장면이 필요하다. 기존 문장을 없앨 이유는 없다. 여기에 수행하고 법문하며 법회를 이끌고 가르침을 전하는 실제 용례를 찾아 출전을 확인하고 보태면 된다.

훌륭한 스님들의 미담으로 사전을 채우자는 요구가 아니다. 목사의 설교가 특별한 선행이 아니듯, 승려의 법문과 교화도 특별한 일이 아니다. 종교인의 일상적인 활동이다. 그 평범한 현재가 사전에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호칭의 높낮이만이 아니다. 그 이름을 찾는 사람에게 어떤 풍경을 보여 줄 것인가도 중요하다. 오늘의 이름 아래 오늘의 삶을 놓는 일. 사전이 해야 할 작은 정비이지만, 독자가 만나는 한 사람의 모습은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

관심이 변화로 이어지기를

최근 국립국어원에서도 불교 어휘의 사전 기술에 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개선의 뜻을 전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반가운 일이다. 사전을 고치는 일에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만큼 하루아침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관심이 구체적인 수정으로 이어져, 사전 속에서도 오늘날의 불교를 조금 더 충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제25회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지관止觀, 함께 닦는가 따로 닦는가

2026. 11. 7(토) 10:00~18:00 동국대학교 본관 남산홀(430석)

주최 밝은사람들연구소
후원 조계종 미래본부, 안국선원
협찬 도서출판 운주사

참가비 없고, 당일 현장 접수합니다.
문의 010-2391-5629

좌 장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교수)
발표1 초기불교 : 정준영 (서불대 불교학과 교수)
발표2 대승불교 : 안성두 (전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발표3 티베트불교 : 조석효 (경남대 학술연구교수)
발표4 불교·명상과학 : 미산 스님 (김완두,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엄성민 (데이터리퍼브릭 대표)
발표5 심 리 학 :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종합토론

● 유튜브 채널 "밝은사람들연구소"에서 지난 학술연찬회 강연 영상 시청 가능합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하시면,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밝은사람들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